

## ■ 본문

수 13:8-14

## ■ 시작 찬송가

300장(통 406장)

## ■ 헌금 찬송가

302장(통 408장)

### ▶ 요단 동쪽 분배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이 비옥하고 아름다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동쪽에 땅을 받는 대신 가나안 점령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3:8)

**감사함으로 받는 삶**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좋은 성과를 낸 지파 순으로 분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분배하였습니다.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기준입니다. 좋지 못하고 산악이 험하며 광야와 같은 땅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 땅의 분배를 받는 사람들의 자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다양한 기후와 지형이 있으며, 그중에는 좋은 땅도 있고, 좋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을 받기 원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는 좋은 것,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 (1) 분배의 기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였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나아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지파 받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의 풍요로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게 되는 땅에는 다양한 지형,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곡식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소출할 수 있는 땅도 있지만, 사막과 같이 척박한 광야도 있습니다. 모든 지파가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할 때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의 기준은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수 13:6-7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각 지파들이 분배 받은 땅이 모두 다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도 모두 다릅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보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받았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사, 삶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 12:6-7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 (2) 이해되지 않는 분배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좋은 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와 애굽에서부터 함께 한 갈렙도 있고,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있고, 전장에 항상 앞서나가는 지파였지만 예루살렘 이남의 광야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공로를 세웠지만 그들은 좋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좋은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좋은 땅을 받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북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북쪽의 땅들은 헐몬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을 분배받은 북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나쁜 땅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이 태어났으며, 온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을 받았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쁜 땅을 받았다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땅에 있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가장 복된 땅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 (3) 기준에 맞는 삶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예루살렘이 있기에 그곳은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 좋은 곳임을 믿으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시 16: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거부가 되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림길 앞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어디를 가도 괜찮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메마른 땅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충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 받아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 13:9-11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기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우리는 어느 땅에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나아가야 할 길

이스라엘 각 지파에 땅을 분배해 주는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좋은 땅이건 좋지 않은 땅이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일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 ▶ 하나님의 함께 하신 땅

유다 지파는 후대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받았던 땅은 험하고 사막과 같은 광야가 있는 예루살렘 이남 지역이었습니다. 땅이 크고 비옥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합니다.  
(2019.01.13. 주일찬양예배 중)

오늘의 한마디 어떤 땅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면 복이 있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7.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서(6월 3일 토요일)